

김병훈은 감성이 남다른 작가이다. 그의 사진을 볼 때마다 구분창 이래 가장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사진을 찍는 사진가라고 생각해왔다. 지난 몇 년 동안 그의 사진작업을 지켜보면서, 또한 그의 사진언어를 들으면서 참으로 세상에 대해 따뜻한 감성을 가진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진가임을 알게 되었다. 이성이 앞선 시대여서 그런지, 아니면 기계중심, 기술중심의 시대여서 그런지 세상이 너무 삭막하고 인간의 감성 또한 메마르다. 사진도 지나치게 요란하다. 너무 현란하거나 너무 구호적이며, 너무 튀거나 너무 속된 것 같다. 예술의 사회적 기능 중에서 인간과 사회를 정화시키는 정화기능이 다른 어떤 기능보다도 오늘날 소중하게 자리잡아야 할 순간이다. 김수자가 말했던가. 오늘이 있어 예술의 기능은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여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라고. 김병훈의 사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다. 우리 곁에 난립하는 수많은 사진 중에서 그의 사진이야말로 관객으로 하여금 의식의 통로를 열고, 누구나 사진 속으로 빨려 들게 하는 공감의 사진이라고 말이다. 결코 보기 드문 감성위주의 사진이라서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진의 소재가 남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라서 그런 것도 아닐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놀랍게도 사진 스스로가 말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진이 스스로 말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김병훈의 사진은 사진 스스로가 말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사진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저 감성의 샘물의 발원지는 어디이며, 언제 어떻게 생성되어 흐르는가가 궁금했다. 늘 그의 사진을 보면 잘 정제된 감성과 감각의 언어가 너무도 투명하고 오롯해서 사진이 이렇게 감성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구나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감각과 감성의 사진가들은 내면세계를 투영한다. 그래서 주관적이고 형식적이며, 또한 자기 표현적이기 쉽다. 때문에 감각과 감성을 겨냥하는 사진들은 작품으로서 수명이 짧거나 금새 흥미를 잃기가 십상이다. 또한 지나치게 감성적이다 보니 내용이 빈약하거나 가벼운 사진이 되기 쉽다. 아무래도 감각적이고 감성적이다 보니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고, 지나치게 자기만족적이어서 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워져서 그렇다. 김병훈의 사진도 감각과 감성을 무기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예민한 센스, 자기만의 독특한 음색과 톤을 연출한다는 점에서 감각과 사진가들이 갖는 한계에 직면한다. 그러나 다행히 그는 단순한 감각, 단순한 감성에 의존하거나, 예의 그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음색과 톤을 보여주기 위해 형식성과 조형성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안심이다. 분명 감각과 감성을 토대로 하지만 이성의 목소리를 우선으로 하는 작가이며, 자신의 독특한 음색과 톤의 빛깔을 앞세우지만 뒷면에 우리시대의 모습을 투영하는 작가이다. 종종 그가 내는 목소리가 내밀하여 감성적으로 보일 때가 많고, 투영하는 이미지가 시적이어서 감각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 이미지, 그 목소리 저편에는 세상을 향한 이성의 눈, 시대의 이야기가 있다. 나는 이따금씩 그의 예민하고 독특한 감각의 사진에서 흠칫 놀라는 시대풍경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미처 예견하지 못한 것이었다. 김병훈의 사진은 한 편의 시를 읽은 듯 마음을 적시고 이성을 깨우는 사진이다. 공유된 현실에서 이제껏 보지 못한 세상, 이제껏 듣지 못한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한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언제나 그가 여는 감각과 감성의 문이다. 사진이 누구에게나 소통 가능한 시각언어라면 시가 되기에 어렵지 않음을 그는 보여준다. 잘 정제된, 잘 순화된 한 편의 주정(主情)시. 김병훈의 사진은 아마 그런 시일 것이다. 실제로 그는 사진을 시의 영역에서 다뤘다. 그의 사진에는 한 행의 시어가 적혀있거나, 시의 제목을 사진의 제목으로 치환하는 경우가 많다.

"까만 바다의 향기", 에서부터 "오늘 햇빛은 공짜이다", 까지 그리고 "산책이 그리운 이유", 에서부터 "내겐 슬픈 것들", 까지 그의 사진은 언제나 시의 모습으로써, 시의 느낌으로써 자리한다. 김병훈의 첫 번째 개인 전 "내겐 슬픈 것들"은 그 점에서 첫 번째 시집을 내는 것과 같다.

자신의 음식에 따라, 자신의 음조에 따라 처음으로 꾸며지는 시와 사진의 향연. 그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가 꿈꿨던 유년시절 꿈의 세계였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그를 사로잡았던 세상의 모습, 호기심으로 총만했던 사물들의 형상들을 이제서야 채집한 유년의 꿈, 유년의 산이다. 그것이 슬픔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슬프다는 것은 그리움도, 연민도 아니다. 그것은 순수의 또 다른 모습일 뿐. 그가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바라본 순수의 모습이다. 영원토록 짙어지고 가야 할 유년의 꿈, 유년의 산처럼 그대로.